

복지 이야기

결심

조 제이 크리스텐슨, "Resolutions", *Ensign*, 1994년 12월호, 62~67쪽에서 일부를 발췌함.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 실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

습니다. 결심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미 아는 것을 생활 속에서 더욱 충실히 따르게 해줍니다. 과거에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관계없이, 훌륭한 결심을 할 때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번창하도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최대한 많이 극복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벤슨 회장님께서서는 교만이 보편적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nsign*, 1989년 5월호, 6쪽) [우리는] 그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몰몬경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3,925쪽에 달하는 몰몬경에 구주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평균 1.7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1월부터 몰몬경을 매일 2쪽씩만 읽더라도(읽기가 느린 사람도 10분이면 2쪽을 읽을 수 있습니다) 9월이면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받은 명에 따라(니파이후서 31:20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흡족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더욱 영감에 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말만 습관적으로 내뱉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진실한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브리검 영 회장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존 에이 윗소 편,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41년, 44쪽)

아직 선교 사업을 다녀오지 않은 모든 청년 독신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준비하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선교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한다면, 2년 동안 경전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와 이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무려 7천 시간이나 되는 전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출애굽기 20:8)

저는 운동 경기라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결전을 벌이든 상관없이 즐겨 봅니다. 그 중 최종 승부를 다투는 일부 경기는 일요일에 중계되며, 유혹은 말할 수 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운동경기 생방송이나 재방송, 그리고 경기 후에도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해설들, 또는 영적으로 고양시켜주지 못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는 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같이 될 여유가 없습니다.

일요일을 특별한 날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심한 일을 지키는 데는 많은 힘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결심을 지켜나감으로써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더욱 구주를 닮게 될 것입니다.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신년 메시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저희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스테이크와 지방부 대회, 선교부 대회, 청소년 대회,

청년 독신 성인 대회(YSA)와 독신 성인 대회(SA), 지도자 훈련 모임, 그 외 다른 모임들에 참석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 충실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위대한 종이며, 주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간증과 봉사하려는 소망이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 부름을 위해 시간을 내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한 전 세계 한인 청년 대회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한 일본 독신 대회는 우리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회원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 더 힘차게 노력하며 신앙을 행사하고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저희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교회 회원들에게 구원의 계획, 속죄, 복음의 회복, 이스라엘의 집합, 영원한 가족 인봉에 근거하는 주님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5)으로서 저희는 이 지역에서 ‘주님의 우선순위’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회원들이 복음 교리를 생활 속에서 계속 충실히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교회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모든 회원이 필요한 신권 의식을 모두 받고, 관련된 성약을 지키며, 승영과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격려하고 도우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구조하라”라는 가르침 주제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활동 회원, 새로운 회원, 그리고 영적 및 세상적

어려움으로 분투하는 활동 회원들을 구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필요 사항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2010년에는 “구조하라”라는 주제를 강조할 것입니다. 조직과 훈련, 보고 체계에 이르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구조하라”라는 주제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구조하라”라는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라(모세서 1:39)는,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우선순위를 살아 있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잘 압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크게 감탄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를 기꺼이 따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하고, 가족과 교회 단위 조직을 강화하며, 신권 활동을 촉진하고,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및 활동 촉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에 서로 협력하며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자립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에 계속 정진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또한 모든 신권 열쇠를 행사할 권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모든 교회 회원에게 필요한 인도와 지도를 받을 권세를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받으신 분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음에 따라 신앙을 행사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 2010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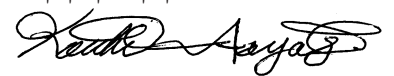
여러분의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최오하



고이치 아오야기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2009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한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복합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이번 복합 스테이크 대회는 토요일인 21일에는 각 지역 별로 모임을 했고, 일요일인 22일에는 교회 본부에서 위성으로 방송된 일요일 총회를 시청했다. 제1회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감리한 일요일 총회는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아드리안 오초아 형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그리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말씀했다. 네 명의 연사는 각각 한국 성도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전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영감으로 가득 찼던 각 연사들의 말씀을 소개한다.

“시온에 모두 오라”

위성 방송 시설이 갖춰진 집회소에



모인 각 지역의 성도들을 맞이한 첫 번째 연사는 한국 성도들에게 낯익은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였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축복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에번즈 장로는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광준 강서 스테이크 회장과 보좌인 이인호 회장, 그리고 최윤환 장로와 함께 식사를 했던 에번즈 장로는 젊은 시절에 세 사람이 친분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광준 회장과 이인호 회장, 그리고 최윤환 장로는 함께 선교 사업을 했던 사이였다. 세 사람은 선교 사업 후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다. 최윤환 장로는 하와이와 유타에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한국에서 각기 다른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었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모두 성전에서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을 이루었고,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온을 건설하기에 힘쓰고 있다. 에번즈 장로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했다. “그날 저녁, 함께 봉사한 후 권고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태어난 본국에 머물며 그곳에서 교회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일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집합하여 함께 교회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 훌륭한 나라에 회복된 복음과 시온을 건설하고 더욱 굳건히 세우실 것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번즈 장로는 이어서 ‘시온으로 모이는 것’ 즉, “본국에 집합하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했다. 교회 초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에 성전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집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에번즈 장로는 “이 중요한 교리”에 순종한 좋은 예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그의 가족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서 개종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성도들이 시온에 가기 위해 유럽을 떠나던 때였다. 그러나 그 후

선지자들은 시온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세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을 포함한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머물렀다.

에번즈 장로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어렵거나 힘든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집합의 교리에 순종함으로써 한국의 교회와 복음은 성장하고 강화되어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선지자들의 권고에 따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받으십시오. 교육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충실한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성전으로 데려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그곳에서 세세 영원토록 인봉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한국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에서 시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아드리안



오초아 형제였다. 오초아 형제는 “여러분은 청남들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동들이 경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라반에게서 낚시판을 획득한 니파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 힐라만의 이천 용사, 그리고 니파이 군대의 지도자가 된 몰몬과 복음을 회복한 조셉 스미스를 예로 들며 그들이 모두 청소년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오초아 형제는 뛰어난 업적을 거둔 청년들의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다.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너희도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단다. 너희는 해낼 수 있느니라. 니파이가 해냈고, 다윗이 해냈고 조셉 스미스가 해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오초아 형제는 한국의 청년들을 “주님의 용맹한 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청년들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초아 형제가 열거한 교훈은, 그들이 주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의를 택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초아 형제는 이 교훈들이 “위대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본부 청남 회장단과 제일회장단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일회장단이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계신 큰 사랑에 감탄합니다. 최근 모임에서 몬슨 회장님께서 청소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저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평한 바닥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정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때,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 할 때, 이미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일만을 하려고 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초아 형제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여러분의 사다리를 벽에 높이 걸쳐 세우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경험들을 찾아서 실천하십시오. 힘에 부쳐 보이는 임무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권능에 의지할 때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커져 가는지를 보십시오. 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세 번째로 말씀을 전했다. 홀런드



장로는 한국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홀런드 장로는 선지자에 대해 말씀했다. “살아계신 선지자들이 실재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 대한 간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토록 사랑 받으셨던 핑클리 회장님만큼 이제는 금세, 몬슨 회장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핑클리 회장님 전에 우리는 헨터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헨터 회장님 전에는 벤슨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벤슨 회장님 전에는 김볼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 경륜의 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홀런드 장로는 선지자를 통해 각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지역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 신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권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라고 간증을 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직하고 합당하며, 회원들의 인도를 위해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 저는 모든 아버지와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들이 성도들을 의롭게 인도하고 성실하게 조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홀런드 장로는 지역 회장단을 통해 선지자로부터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졌거나, 앞으로 전해질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복지 원리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지 원리를 통해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부채를 피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홀런드 장로는 덧붙였다.

홀런드 장로가 밝힌, 앞으로 지역 회장단이 전할 두 번째 우선 사항은 바로 “구해내라”였다. 홀런드 장로는 몬슨 회장이 들려 준 ‘잃어버린 대대’를 구조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선 동료 병사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은) 신권에 성임 되지 않았던 저활동 남성 회원, 아론 신권에는 성임 되었지만 멜기세덱 신권을 받지 못한 저활동 남성 회원, 침례를 받은 후 곧바로 떨어져 나간 새로운 회원들과 초등회, 아론 신권의 청년들, 십대에 들어선 청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께서 주시는 한결 같은 권고사항으로 모든 합당한 청년과 많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홀런드 장로는 한국 출신의

청년 전임 선교사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권고하며, “한 세대의 선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마음속에 신앙과 간증을 품은 채 귀환하는 것처럼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홀런드 장로는 진심어린 당부로 말씀을 마쳤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저도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주시는 인도에 반드시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검약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종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함”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마지막



연사로 한국 성도들과 만났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복합 스테이크 위성 방송에 대한 소감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열일곱 개의 스테이크와 여섯 개의 지방부가 함께 한 이 스테이크 대회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한국 성도들에 대한 감사도 덧붙였다. “나이에 관계없이 충실한 성도 여러분께 깊이 탄복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여러분을 위해 자주 기도하며,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해 주시는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선교 사업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나와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는 114명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훌륭한 숫자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모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친구들 및 교회 지도자 여러분, 부디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영감 받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또한 선교 사업을 할 연령에 이르렀으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고 선교사로 나갈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수익을 가져올 건설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를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공과가 담겨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3장을 공부하십시오. 이 공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간증이 쌓이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선교 사업에 대해 강조한 후,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스테이크 대회는 개인적인 개종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강화할 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권능이 개개인과, 가족과, 국가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된 복음으로의 개종의 정도를 더욱 깊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켜 줄, 단순하면서도 검증된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다.

그 첫 번째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이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인용해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 예배의 궁극을 나타냅니다. 이 의식들은 우리 신학 체계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추천서를 받고, 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도록 촉구합니다.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제안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향유하는 곳,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 자매의 모범을 통해 복음의 가치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경전을 탐구한다면, 여러분의 간증이 더 굳어지고 영성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마지막으로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지금처럼 절실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말씀을 마무리 하며 기본적인 몇 가지를 당부하고 간증을 전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

몰몬경이 전해 준 축복



정상우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내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정지현 당시 공항 지부 지부 회장이름은 몰몬경을 최소한 다섯 번은 읽어야 된다고 말씀했다. 그 당시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부 회장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나는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목표를 이루었고 내 마음속에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이 싹텄다. 그리고 나는 1989년 3월, 스무 살의 나이로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할 때도 몰몬경은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물론 선교사가 몰몬경을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보다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몰몬경을 백 번 읽는 것이었다. 나는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읽고, 읽고, 또 읽었다. 애초에 배움이 늦은 나였다. 어릴 때 병을 앓아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고, 그 후에도 기초 학문을 쌓기가 힘들었다.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열심히 하기' 밖에 없었다.

1994년 6월 30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몰몬경을 백 번 읽기를 마친 날이었다. 이미 귀환하고도 3년 가까이 흘렀을 때였지만,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또한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십 년 이상 매일 몰몬경을 읽어 오면서,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도구가 바로 몰몬경임을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이 책,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었다. 나에게 많은 행복과 충만한 기쁨도 주었다. 지혜와 분별력도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몰몬경을 백서른아홉 번 읽었다. 이백 번 읽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또 다시 삼백 번을 목표로 할 것이다. ■

개종의 계기



한상천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우리 가족이 침례를 받은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나는 지난 일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두 달 전 태어난 막둥이 인준이다.

우리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된 계기는 아이들의 영어 교육 때문이었다.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이 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잘 시킬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한 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인 렐마 장로와 존슨 장로를 만났다. 시작은 영어 때문이었지만 곧 우리 가족은 선교사들과 복음 공부하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에 이미 이 교회를 알고 있었다. 울산에 있는 절친한 친구 둘이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의 회원이었는데, 두 사람이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들이 나에게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 그리고 안식일의 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두 친구의 언행에는 신뢰와 정직함이 있었고, 나는 그들을 닮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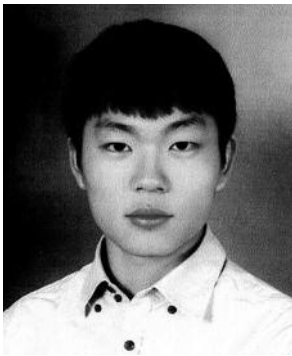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두 친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나를 주님의 참된 교회로 이끈 것은 바로 그들의 모범과 선량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준 그 두 친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침례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성전에서 만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모범을 보여준 두 친구, 박재열 형제와 이수용 형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모범적인 언행을 하는 후기 성도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도한다. ■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7절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



강인호 형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2년 전이었습니다. 하룻길에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팸플릿을 주면서 그리스도와 몇몇 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미나리도 한 학기 밖에 안 들었고,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저는 조셉 스미스-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각기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리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의 존재라는 것을 간증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의 대화를 작은 형에게 이야기하자, 이런저런 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대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간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가 신권이 회복된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께서 선지자였다는 사실과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용기 있게 제가 믿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5명



김경수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1와드
부산 선교부



조원태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도재욱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평 와드
부산 선교부



최성호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부산 선교부



정예슬 자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감독: 변창기(전임: 이태재)

기사를 기다립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2009년 12월호 지역 소식에서 소개한 바 있는 다음의 기사를 모집 중입니다.

1. 한국 성도의 소리
2.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
3. 침례의 물가에서

기사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한국 관리 본부

자재관리부 전건우 형제 앞, 우편번호)100-456

전화 번호: 02-2232-1441 (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형제)